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허 철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 여 옥

2002년 8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여옥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송 여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가?

문제2 :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가?

문제3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2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삼았다.

측정도구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검사지로서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검사하기 위해 안범희(1984)가 제작한 대인관계성향 검사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지는 7개 하위영역(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으로 구성되어있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순위에서 막내가 맏이나 중간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한 집단일수록 부모와 개방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부모와 문제형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셋째, 출생순위에서 맏이는 사교-우호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막내는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있다.

넷째,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독립-책임감적이고,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

다섯째, 아버지와 개방형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자녀는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고, 아버지와 문제형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

여섯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수록 자녀는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일수록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의사소통 기법 훈련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부모의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5
2. 대인관계 개념 및 성향	11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17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0
1. 연구 대상	20
2. 측정 도구	20
3. 자료 처리	2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6
1.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분위기별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검증	26
2.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분위기별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30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35
V. 요약 , 결론 및 제언	40
1. 요약	40
2. 결 론	44
3. 제 언	45
참 고 문 헌	46
Abstract	50
부 록	53

< 표 목 차 >

<표 II-1> 대인관계성향 모형	16
<표 III-1> 연구대상	20
<표 III-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검사의 내용과 문항	21
<표 III-3>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내용과 문항	23
<표 III-4>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신뢰도	24
<표 IV-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26
<표 IV-2>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27
<표 IV-3> 가정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29
<표 IV-4>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31
<표 IV-5>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32
<표 IV-6> 가정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34
<표 IV-7>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	36
<표 IV-8>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	38

[그림 목 차]

[그림 1] Leary의 대인관계행동 8차원	13
[그림 2] Krech의 기본적인 대인반응 특성	1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속한 집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족이다.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의 많은 부분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의 능력만을 본위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심리적 안정, 휴식의 기능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간의 심리적,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행된다. 가족은 상호 작용하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의사소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나간다.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화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자녀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인 관계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녀의 성격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매개체인 언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그러나 오늘날 매스컴의 발달과 가족 구조의 변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맞벌이 부부 증가, 부부 이혼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등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사회성이 약화되고, 가정 내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형제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따라 자녀들의 대인관계는 점차로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

가족내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독특한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인격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영향은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서 비롯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의 대인관계가 원만해 질 수가 없다.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여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는 반면 부모와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타인에 대해 방어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부모의 대화 방식에 따라 자녀가 대인관계성향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방문희(1991)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주어, 청소년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 대인관계성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청소년과 청년 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방문희(1991)의 연구 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인관계성향과 자아개념을 다룬 연구가 있으나(지용식, 1991 ; 김수미, 1997),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들의 성장 발달 및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는 대인관계성향은 부모의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문제1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가?

문제2 :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가?

문제3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세웠다.

가설1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2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제주시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부모들에게 직접 의사를 개진하여 측정하여야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측면에서만 조사되었다.

셋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해 관찰법,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설문지 조사에 국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의사소통 개념, 필요성 및 유형, 대인관계 개념 및 성향,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공유), 혹은 Communicare(공동체, 공유성을 이룩하다, 공통성을 이룩한다, 혹은 나누어 갖는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마음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유영주, 1998).

Communication 이란 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전달’, ‘의사소통’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영주(1998)는 의사소통은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였고, 박연호(1999)는 의사소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특히 상호간의 이해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측의 의식이나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 Bienvenu와 McClain (1970)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나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감정과 의미들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Satir(1972)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써의 의사소통은 가족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Paolucci, Hall과 Axinn(1977)은 가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의미있는 수준을 창조하는 정보 체계이고 모방된 교환물이며 의사결정과 결정 수행 상 필수적임을 밝혔다(김오남, 1994, 재인용).

또 유영주(1998)는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의하고, 의사소통을 인간관계를 존속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이라 하였고, 김양희(1989)는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고영복(1977)은 의사소통은 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경험의 공유에 의한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에 의한 안정감을 획득하며,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의 접촉에 의한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 필요한 정보입수, 기분전환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남희, 2000, 재인용).

의사소통에 대한 위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일정한 수단을 통하여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타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 개선 및 악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호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사

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내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 가정을 구성해 나가는데,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 상호간의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점차 누적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녀가 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됨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오세덕, 1995), Rogers의 인간중심치료에서도 유기체의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은 자아개념의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 자아개념의 형성은 주로 의사소통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결정하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머니-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최경희, 1993).

Olson, Sprenklr & Russell(1979)은 의사소통이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며 자녀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Foley(1974)는 주장하고.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

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세대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1988, 재인용).

또 Kennedy(1971)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순조롭게 발달시키려면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감정의 지지를 보내며 자녀의 능력이나 독창성을 인정해주고 부모 스스로도 자기태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이 적으며,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신의정(1995)은 보고하였다.

김정희(1987)는 어머니와 자녀간에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쌍방 통행식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마정건(1988)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병리적 성격특성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격변은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은 자녀들이 많은 문제와 욕구좌절에 부딪칠 때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와 가정 내 부모-자녀간의 대화 기회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생활지도가 결여되기 때문인 것이다.

정원식(최선남, 1990, 재인용)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가능성은 36%,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가능성은 10%라고 하였으며, 김오남(1994)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정도는 15.8%, 아버지와 대화하는 정도는 6.1%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성격 및 인성 발달을 위하여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유형이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에 관한 것으로, Galvin과 Brommel(1986)은 의사소통과정이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형된 의사소통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재인용).

의사소통을 Beaubien(1970)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 메시지의 전달, feedback요소를 특정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청소년의 대화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차단형, 자녀 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 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차단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 Satir(1972)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으로 분류하였다. 회유형은 자신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려고 애쓰는 유형이고, 비난형은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유형을 말한다. 평가형은 모든 일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유형으로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냉담하여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으며, 혼란형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욕구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거부당하지 않으려 하는 유형을 말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Gordon(1975)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나-메세지와 너-메세지로 구분하였다. 나-메세지는 자녀의 행동에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과 느낌을 알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반면에 너-메세지는 명령, 경고, 설교 등의 형태로써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어머니-아동간의 상호작용을 Bernstein(1971)은 언어유형에 따라서 제한된 어법과 정교한 어법으로 구분하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언어통제유형을 명령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의 3가지로 분류하였고, 의사거래분석가인 Berne은 의사소통유형을 보완적 상호교류, 교차적 상호교류, 잠재적 상호교류로 분류하였다. 보완적 상호교류란 양자간 심리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이며, 교차적 상호교류는 예상이외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기대에 맞지 않는 반응이 교차할 때 보여지는 의사소통유형으로 두 사람 관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며, 잠재적 상호교류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교류를 말한다.

Barnes와 Olsen(1985)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순환모형(circumf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스러우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즉 의사소통유형이란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중 개방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에 유용하고, 문제형은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검증하기에 용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알고자 하였으므로 Barnes와 Olsen의 분류에 따라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Barnes와 Olsen이 분류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대인관계 개념 및 성향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상호 작용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한 자기의 태도는 타인에 대한 정보의 정도,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정도, 상호간의 정의적 우대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지용근, 1996).

Heider(1964)는 대인관계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소수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라고 하였으며,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 행동을 타인과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윤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보았다.

즉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란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인 특히 1대 1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인관계의 목적 및 그 기능을 살펴보면, Sullivan을 비롯한 신프로이드 학파가 주장하는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목적

은 만족의 추구하고 안전의 추구하고, Blumer를 비롯한 상징적 상호 작용 주의 (Symbolic Interaction)학파는 인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인간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는 것과 이러한 의미들은 인간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점등을 강조하면서 대인관계의 목적을 협동과 사회적인 적응에 두었다(정준교, 1997).

Heider(1964)를 비롯한 형태주의 학파에서는 형평의 추구를 대인관계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Combs, Rogers 등의 인본주의학파에서는 적응, 자기 및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아 실현 등을 대인관계의 목적으로 보았고, Horrmans는 대인관계의 목적이 호혜적인 교환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실존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한 May(1961)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통합적인 인간, 주체성 확립에 두었으며, 정신분석학에서는 적응과 쾌락의 추구를 대인관계의 목적으로 보았다(임동숙,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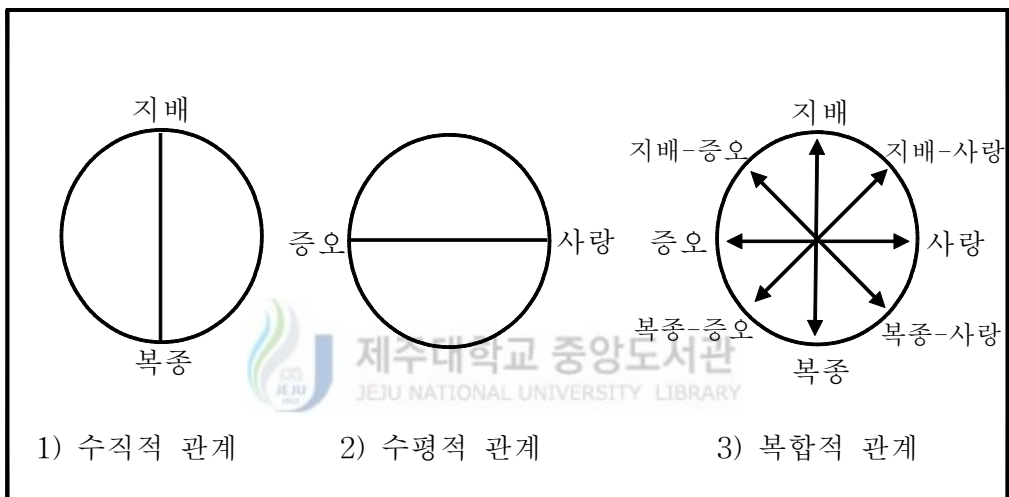
이상의 여러 심리학파의 이론을 토대로 대인관계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대인관계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 이해 및 통제, 교환, 도움을 주고 받음, 의미의 추구를 통해 형평 내지는 적응, 만족스러움, 어떤 목적의 달성이나 이득을 추구하면서 추구성의 확립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대인관계성향은 개개인이 사람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대인관계 차원 즉 성향을 제시하는 연구자는 Leary, Schutz, Krech 등으로 대표된다.

Leary(1957)는 성격 자체를 개인에 의해 표현되는 명백한, 의식적인 또는 사적인 대인반응의 대차원적 양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동료 Coffy와 함께 대인관계 행동차원을 발전시켰는데, Sullivan의 지배-복종, 중요-사랑의 대인관계 행동차원을 고수하면서 발전시켰다. 수직적 관계에

서는 일방의 지배와 또 다른 일방의 복종 관계가 성립되며, 수평적 관계에서는 증오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차원을 좀 더 세분화하면 [그림 1]의 복합적 관계와 같은 8차원의 대인관계행동이 된다.

즉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지배-사랑, 증오-복종, 사랑-복종의 관계가 추가되어 8차원의 대인관계행동 차원이 된다.



출처: 안범희, 1979, 대인관계의 이론 고찰, p. 82, 재인용.

[그림 1] Leary의 대인관계행동 8차원

Schutz(1958)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적 욕구로 인해 대인행동이 설명된다고 하였는데, 이 세 가지 욕구란, 첫째,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연합에 있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소속의 욕구, 둘째, 통제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의 욕구, 셋째, 사랑과 애정에 주목해서 행동적

으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정의 욕구이다(남정화, 1998).

소속의 욕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결합함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소속을 뜻하는 말로서, 결합, 상호작용, 교제, 의사소통, 속함 등이 있다. 지배의 욕구는 통제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통제를 뜻하는 말로는 권력, 권위, 지배, 영향력, 지도자 등이 있다. 애정의 욕구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정서적 느낌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사랑과 호의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면을 뜻하는 말로는 사랑, 좋아함, 밀착, 좋은 느낌, 우호 등이 있다.

대인관계성향을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적 성향으로 나눈 Krech(1962)는 이것을 기본적인 대인반응 특성(primary interpersonal response traits ;PIRT)이라 명명하였다. 이 세가지 성향에 따라 4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역할 성향에는 주도권, 지배, 사회적 술선수범, 독립성 영역이 있고, 사회관계 성향에는 타인의 수용, 사회성, 우호적, 동정적 영역이 있으며, 표현적 성향에는 경쟁적, 공격적, 자의식적, 과시적 영역이 있다.

이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은 [그림 2]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2] 의 ‘A’ 부분은 대인관계성향의 3영역이고, ‘B’ 부분은 각 영역의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이며, ‘C’ 부분은 ‘B’ 의 반대적인 성향을 대칭시켜 놓은 것이다(임동숙, 2000).



출처: Krech, et al, 1962, p. 106, 재인용

[그림 2] Krech의 기본적인 대인반응 특성

이상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안범희는 대인관계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하여 대인관계적절성 검사(1984)를 제작하고, 대인관계 성향 검사(1984)를 제작하였다. 안범희의 대인관계성향 모형은 Krech의 모형으로부터 대인관계성향의 영역을 설정하고, Leary의 모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성향의 요인을 재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대인관계성향 모형

A	차원	B	C
역 할 성 향	1	지배적	복종적
		우울적	자기비하적
	2	독립적	의존적
		책임감적	무책임적
사회적 관 계 성 향	3	동정적	비동정적
		수용적	거부적
	4	사교적	비사교적
		우호적	비우호적
표 현 성 향	5	경쟁적	비경쟁적
		공격적	비공격적
	6	과시적	자기폐쇄적
		자기도취적	자기의식적
	7	반항적	타협적
		불신적	신뢰적

<표 II-1>의 대인관계성향 모형에서 ‘A’ 부분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맡은 역할, 사회적 관계, 상대방에 취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B’의 부분은 각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즉 대인관계 상황에서 그가 취하는 역할이 지배적인가, 복종적인가,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를 구분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곧 대인관계성향의 각 요인을 이룬다. ‘C’ 부분은 ‘B’의 반대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B’의 정도가 높아지면 ‘C’의 정도는 자연 낮아지게 된다. 결국 ‘대인관계성향검사’는 ‘B’의 요인만으로 구성하게 된다(안범희, 1984). 이 모형은 3가지 대인관계 영역안에 7가지 차원의 대인관계성향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 별로 상단의 것은 보편성향, 하단의 것은 극단성향을 나타낸다(심혜영, 1992).

본 연구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Krech의 모형으로부터 대인관계성향의 영역을 설정하고, Leary의 모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성향의 요인을 재구성한 안범희의 대인관계성향 모형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고, 대화 시간도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다(민혜영, 1990 ; 김정선, 1996 ; 황순규, 1997).

어머니가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김정선, 1996), 자녀의 병리적 인성이 감소되고(마정건, 1988), 대화의 만족도가 높아지며(이

정우, 김규원, 198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도 높아졌다(권혜진, 1992).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아지며(박은주, 1994 : 김진희, 1989),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자녀는 자기표현을 많이 했다(권미경, 1993).

특히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며(노성향, 1994),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성이 높아지고(김양숙, 1995), 가족의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인지가 낮아졌다(김오남, 1994).

아버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은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방문희, 1991).

김진희(1989), 김양숙(1995), 황순규(1997)의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많이 하여 의사소통수준이 높으며, 어머니와의 대화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되었고(이정우 · 김규원, 1989 : 김진희, 198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더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지각되었다(심혜영, 1992).

가정이 화목할수록 대화의 만족도가 높고(이정우, 김규원, 1989),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 하였다(황순규, 1997).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결론이 보고되었는데, 임동숙(2000)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성향이 강하고,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은 여학생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방문희(1991)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사교-우호적,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맏이가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성향을 보이며, 중간이 경쟁-공격적 대인관계성향을, 막내가 지배-우월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이 모두 개방형일수록 독립적-책임감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지니며,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이 모두 문제형일수록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보인다고 하였다(방문희, 1991).

또 김정희(1987)는 남학생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민주협력적이고 쌍방통행식이었다고 주장하고, 대인관계 성향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지배적이고 협동적이며 반항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하였으며, 심혜영(1992)은 부모와의 대화개방도가 높다고 지각한 고등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도취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가지며, 부모와의 대화개방도가 낮다고 지각하는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지각하는 학생에 비해 보다 더 반항-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반항-공격적, 독단-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낮고, 사교-우호적,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노출적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주소영, 1995), 가정분위기가 좋을수록 친구와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이고 친애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 되었다(최부근,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의 대화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들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있게 사회에 적응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의 실시에 따른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개 학급, 6학년 7개 학급 397명을 임의 표집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검사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397명의 검사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총 324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표Ⅲ-1>과 같다.

<표 Ⅲ-1> 성별, 학년별 조사 대상

구분	남	여	계
5학년	79	71	150
6학년	86	88	174
계	165	159	324

2. 측정도구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에 실시된 측정 도구는 의사소통유형 검사와 대인관계성향 검사이다.

1) 의사소통유형 검사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 PAC)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순환 모델(circo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open in family communication)과 문제형 의사소통(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 PAC)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가지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검사하였으며, 하위요인에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10문항씩 총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검사지의 신뢰도는 Olson 등이 1841가족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총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82였다. 또한 김윤희(1989)가 측정 한 결과 Cronbach α 값은 .85이며, 검사의 내용과 문항은 <표Ⅲ-2 >와 같다.

<표 Ⅲ-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검사의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개방형 의사소통	1,3,5,7,9,11,13,15,17,19	10
문제형 의사소통	2,4,6,8,10,12,14,16,18,20	10
계		20

채점방식은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 모두 ‘항상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하위요인별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가 되며,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이고,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2) 대인관계성향 검사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검사는 Leary의 대인관계 성향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Krech 등이 제시한 대인적 반응 특성, Schutz의 대인관계의 기초적인 욕구 내용 등 대인관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안범희(1984)의 대인관계성향 검사지를 초등학생용으로 지용근(199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대인관계성향 검사에는 3개 영역,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영역으로는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으로 구분되고, 이중 역할 성향 영역은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감적 2개 요인으로, 사회관계 성향은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2개 요인으로, 표현성향은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 3개 요인으로 나뉘어지며 검사의 내용과 문항은 <표Ⅲ-3>와 같다.

<표 III-3>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문항 구성

영역	요 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역할 성향	지배- 우월적	1,2,15,16,29,30,43,44,57,58,71,72	12
	독립- 책임감적	3,4,17,18,31,32,45,46,59,60,73,74	12
사회 관계 성향	동정- 수용적	5,6,19,20,33,34,47,48,61,62,75,76	12
	사교- 우호적	7,8,21,22,35,36,49,50,63,64,77,78	12
표형 성향	경쟁- 공격적	9,10,23,24,37,38,51,52,65,66,79,80	12
	과시- 자기도취적	11,12,25,26,39,40,53,54,67,68,81,82	12
	반항- 불신적	13,14,27,28,41,42,55,56,69,70,83,84	12
계			84

채점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그런 경우가 없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언제나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계수 (지용근, 1996)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신뢰도

하위요인	지배- 우월적	독립- 책임감적	동정- 수용적	사교- 우호적	경쟁- 공격적	과시- 자기도취적	반항- 불신적
신뢰도 계수	.78	.81	.80	.82	.73	.77	.73

3) 개인의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배경변인으로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 가정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1) 성별

자녀의 성별에 따라 통계처리를 위하여 ‘남자’는 1, ‘여자’는 2로 가변수화 하였다.

(2) 출생순위

자녀의 출생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말이’는 1, ‘중간’은 2, ‘막내’는 3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3)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우 화목하다’는 1, ‘화목하다’는 2, ‘보통이다’는 3, ‘화목하지 않다’는 4, ‘매우 화목하지 않다’는 5로 가변수화 하였다.

3. 자료처리

자료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324부였고,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비교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차이 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출생순위별,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비교와 출생순위별,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차이 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간의 상관은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넷째, 유의수준은 $p < .01$,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 분위기별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또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분위기별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검증

가설1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표IV-1>은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IV-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구분		성별	N	M	SD	t
아버지의 의사소통	개방형	남	165	33.03	6.25	-.61
		여	159	33.48	7.01	
	문제형	남	165	27.59	6.46	1.12
		여	159	26.77	6.76	
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형	남	165	36.36	5.81	-.25
		여	159	36.53	6.40	
	문제형	남	165	25.30	6.38	1.90
		여	159	24.01	5.91	

<표Ⅳ-1>를 보면 성별에 따른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가족의 분화와 자녀 출생률 감소 등 과거의 남아존중 사상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약화되고, 사회내의 양성평등사상이 가정에까지 파급되어 남아, 여아 구별없이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

<표Ⅳ-2>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출생순위별로 아동의 지각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표Ⅳ-2>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구분		출생순위	N	M	SD	F
아버지의 의사소통	개방형	말이	153	33.39	6.79	
		중간	59	31.27	6.48	3.64 *
		막내	112	34.10	6.31	
	문제형	말이	153	26.86	6.66	
		중간	59	28.58	6.10	1.59
		막내	112	26.91	6.77	

구분		출생순위	N	M	SD	F
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형	말이	153	36.37	5.86	.03
		중간	59	36.41	5.86	
		막내	112	36.55	6.58	
	문제형	말이	153	24.50	6.23	.82
		중간	59	24.03	5.38	
		막내	112	24.22	6.51	

(* : p<.05)

출생순위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표IV-2>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출생순위별로 보면 막내(M=34.10), 말이(M=33.39), 중간(M=31.27) 순으로 아버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유형과 어머니와 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모두 그 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순위별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아버지와 막내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중간 자녀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모두가 막내를 귀여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가하면, 아버지는 중간에게 비교적 덜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어머니는 말이에게 장자로서의 기대를 걸고 있어 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

가정 분위기에 따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가정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구분		가정의분위기	N	M	SD	F
부의 의사소통	개방형	매우 화목	100	36.68	5.23	43.64 **
		화목한 편	102	34.56	5.08	
		보 통	79	31.35	6.61	
		화목하지 않음	43	25.65	5.66	
	문제형	매우 화목	100	24.45	5.83	32.43 **
		화목한 편	102	25.46	5.80	
		보 통	79	29.29	5.85	
		화목하지 않음	43	33.81	5.77	
모의 의사소통	개방형	매우 화목	100	39.53	4.93	34.23 **
		화목한 편	102	37.16	5.05	
		보 통	79	35.10	5.57	
		화목하지 않음	43	30.02	6.35	
	문제형	매우 화목	100	21.69	5.58	23.26 **
		화목한 편	102	24.20	5.16	
		보 통	79	26.30	5.95	
		화목하지 않음	43	29.70	6.15	

(** : p<.01)

<표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형($p<.01$), 문제형($p<.01$)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버지의 개방형의 경우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하다’(M=36.68), ‘화목한 편이다’(M=34.56)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개방형의 경우도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하다’(M=39.53), ‘화목한 편이다’ (M=37.16)의 집단이 나머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제형의 경우 가정의 분위기가 ‘보통’(부와의 의사소통 M=29.29, 모와의 의사소통 M=26.30), ‘화목하지 않다’(부와의 의사소통 M=33.81, 모와의 의사소통 M=29.70)의 집단이 나머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문제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이 화목하다고 지각할수록 대화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한 이정우, 김규원(1989)의 보고와 일치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유대 관계를 지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분위기별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가설2는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표IV-4>는 성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IV-4>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하위 영역	성별	N	M	SD	t
지배-우월적	남	165	32.50	6.29	-.29
	여	159	32.72	6.91	
독립-책임감적	남	165	36.62	7.07	-.29
	여	159	37.70	5.69	
동정-수용적	남	165	39.33	8.94	-1.50
	여	159	39.33	7.01	
사교-우호적	남	165	40.47	6.64	-1.51
	여	159	40.25	7.94	
경쟁-공격적	남	165	36.85	7.74	-.01
	여	159	36.86	7.08	
과시-자기도취적	남	165	32.38	7.57	-.01
	여	159	35.69	7.55	
반항-불신적	남	165	31.88	6.42	.27
	여	159	32.06	6.79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표 IV-4>에서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높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은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성향이 강하고, 여학생은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높다고 한 임동숙(2000)의 보고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남녀평등사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

고, 가족 내에서는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아들, 딸 구별 없이 평등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	출생순위	N	M	SD	F
지배-우월적	말이	153	32.14	6.42	1.85
	중간	59	32.00	6.72	
	막내	112	33.57	6.70	
독립-책임감적	말이	153	37.53	6.45	5.44 **
	중간	59	34.71	6.49	
	막내	112	37.92	6.14	
동정-수용적	말이	153	39.68	7.08	4.65 *
	중간	59	36.54	7.06	
	막내	112	40.32	9.38	
사교-우호적	말이	153	40.97	7.19	3.91 *
	중간	59	37.98	7.74	
	막내	112	40.77	7.02	
경쟁-공격적	말이	153	36.41	7.47	1.90
	중간	59	35.95	7.05	
	막내	112	37.93	7.47	
과시-자기도취적	말이	153	33.43	7.99	4.61 *
	중간	59	32.31	8.43	
	막내	112	35.69	6.66	
반항-불신적	말이	153	31.23	6.22	3.38 *
	중간	59	31.43	6.46	
	막내	112	33.27	7.01	

(* : $p < .05$, ** : $p < .01$)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표IV-5>에서 살펴보면, 독립-책임감적 영역($F=5.44$)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동정-수용적($F=4.65$), 사교-우호적($F=3.91$), 과시-자기도취적($F=4.61$), 반항-불신적($F=3.38$) 영역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립-책임감적 영역에서는 막내($M=37.92$)가 가장 높고, 맏이, 중간 순으로 나타났다. 동정-수용적 영역에서는 막내($M=40.32$)가 가장 높고, 맏이, 중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우호적 영역에서는 맏이($M=40.97$)가 가장 높고, 막내, 중간 순으로 나타났다. 과시-자기도취적 영역에서는 막내($M=35.69$)가 가장 높고, 맏이, 중간 순으로 나타났다.

반항-불신적 영역에서는 막내($M=33.27$)가 가장 높고, 중간, 맏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맏이는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가지며, 막내는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맏이가 과시-자기도취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가지고, 막내가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는 방문희(199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이다.

3)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가정 분위기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가정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	가정의 분위기	N	M	SD	F
지배-우월적	매우 화목	100	31.74	6.06	8.21 **
	화목한 편	102	32.09	6.27	
	보 통	79	31.94	5.70	
	화목하지 않음	43	37.09	8.29	
독립-책임감적	매우 화목	100	32.61	6.59	2.81 **
	화목한 편	102	37.58	6.91	
	보 통	79	37.14	4.90	
	화목하지 않음	43	35.63	5.88	
동정-수용적	매우 화목	100	38.98	8.75	2.23
	화목한 편	102	40.76	6.44	
	보 통	79	37.15	7.05	
	화목하지 않음	43	39.09	9.77	
사교-우호적	매우 화목	100	42.46	5.98	9.71 **
	화목한 편	102	39.60	8.57	
	보 통	79	39.33	8.04	
	화목하지 않음	43	37.68	7.20	
경쟁-공격적	매우 화목	100	37.33	5.93	4.00 **
	화목한 편	102	37.91	6.52	
	보 통	79	40.36	9.49	
	화목하지 않음	43	41.47	7.30	
과시-자기도취적	매우 화목	100	35.81	6.60	4.72 **
	화목한 편	102	36.76	6.93	
	보 통	79	36.48	7.94	
	화목하지 않음	43	40.33	8.50	
반항-불신적	매우 화목	100	32.33	7.41	9.89 **
	화목한 편	102	34.45	7.90	
	보 통	79	33.38	6.30	
	화목하지 않음	43	36.85	7.66	

(** : p<.01)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표IV-6>에서

살펴보면, 지배-우월적 (F=8.21), 독립-책임감적 (F=2.81), 사교-우호적 (F=9.71), 경쟁-공격적 (F=4.00), 과시-자기도취적 (F=4.72), 반항-불신적 (F=9.89) 영역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우월적 영역에서는 화목하지 않다(M=37.09)가 가장 높고, 화목하다, 보통, 매우 화목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책임감적 영역에서는 화목하다(M=37.58)가 가장 높고, 보통, 화목하지 않다, 매우 화목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우호적 영역에서는 매우 화목하다(M=42.46)가 가장 높고, 화목하다, 보통, 화목하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공격적 영역에서는 화목하지 않다(M=41.47)가 가장 높고, 보통, 화목하다, 매우 화목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과시-자기도취적 영역에서는 화목하지 않다(M=40.33)가 가장 높고, 화목하다, 보통, 매우 화목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항-불신적 영역에서는 화목하지 않다(M=36.85)가 가장 높고, 화목하다, 보통, 매우 화목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독립-책임감적이고,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지니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가설3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표Ⅳ-7>은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을 알아본 결과이다.

<표Ⅳ-7>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의사소통유형 \ 대인관계성향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개방형	문제형
지배-우월적	-.19 **	.139* *
독립-책임감적	.068	-.040
동정-수용적	.217 **	-.119 *
사교-우호적	.294 **	-.247 **
경쟁-공격적	-.186 **	.125 *
과시-자기도취적	.007	-.058
반항-불신적	-.311 **	.325 **

(* : $p < .05$, ** : $p < .01$)

<표Ⅳ-7>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

관계성향 중 동정-수용적 영역($r=.217, p<.01$)과 사교-우호적 영역($r=.294,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지니고 있는 반면, 지배-우월적 영역($r=-.190, p<.01$)과 경쟁-공격적 영역($r=-.186, p<.01$), 반항-불신적 영역($r=-.311, p<.01$)에는 부적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사교-우호적 관계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적 영역($r=.139, p<.05$)과 경쟁-공격적 영역($r=.125, p<.05$), 반항-불신적 영역($r=.325,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동정-수용적 영역($r=-.119, p<.05$)과 사교-우호적 영역($r=-.247,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일 때 자녀는 타인을 수용하고 허용하며 타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포용력있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인다.

그 반면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 때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권위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이고, 타인과 경쟁, 공격적이고, 반항, 불신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자녀의 인성 발달 및 사회적 교우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표Ⅳ-8>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을 알아본 결과이다.

<표Ⅳ-8>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의사소통유형 \ 대인관계성향	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형	문제형
지배-우월적	-.157 **	.102
독립-책임감적	.062	-.043
동정-수용적	.199 **	-.141 *
사교-우호적	.244 **	-.249 **
경쟁-공격적	.097	.061
과시-자기도취적	-.041	-.057
반항-불신적	-.294 **	.290 **

(* : p<.05, ** : p<.01)

<표Ⅳ-8>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적 영역($r=.199, p<.01$)과 사교-우호적 영역($r=.244,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지배-우월적 영역($r=-.157, p<.01$), 반항-불신적 영역($r=-.294,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사교-우호적 영역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반항-불신적 영역($r=-.290$,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동정-수용적 영역($r=-.141$, $p<.05$)와 사교-우호적 영역($r=-.249$, $p<.01$)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일 때 자녀는 타인을 수용하고 허용하며 타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포용력있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친애적이고 협조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 때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배타적이고 의심이 많은 대인관계성향을 보이고, 비협조적이며 타인을 경계하고 고립시키는 대인관계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인성이 바르게 형성되어 문제 행동이 적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는 불평, 불만이 늘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 정명희(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이면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지배-우월적 대인관계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 경우에는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1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가?

문제2 :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가?

문제3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세웠다.

가설1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은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2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9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조사하고, 그 중 32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삼았다.

측정도구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 PAC)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검사하기 위해 안범희(1984)가 제작한 대인관계성향 검사지를 초등학생용으로 지용근(199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성별, 출생순위별,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둘째, 출생순위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보면, 막내(M=34.10), 맏이(M=33.39), 중간(M=31.27) 순으로 아버지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유형과 어머니와 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모두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형($p<.01$), 문제형($p<.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버지의 개방형의 경우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하다’($M=36.68$), ‘화목한 편이다’($M=34.56$)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개방형의 경우도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하다’($M=39.53$), ‘화목한 편이다’($M=37.16$)의 집단이 나머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제형의 경우 가정의 분위기가 ‘보통’, ‘화목하지 않다’의 집단이 나머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높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보면, 독립-책임감적 영역($F=5.44$)에서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였고, 동정-수용적($F=4.65$), 사교-우호적($F=3.91$), 과시-자기도취적($F=4.61$), 반항-불신적($F=3.38$)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독립-책임감적 영역($M=37.92$), 동정-수용적 영역($M=40.32$), 과시-자기도취적 영역($M=35.69$), 반항-불신적 영역($M=33.27$)에서 막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우호적 영역에서는 맏이($M=40.9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보면, 지배-우월적 ($F=8.21$), 독립-책임감적 ($F=2.81$), 사교-우호적($F=9.71$), 경

쟁-공격적 ($F=4.00$), 과시-자기도취적 ($F=4.72$), 반항-불신적($F=9.89$)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나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독립-책임감적이고,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지니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적 영역($r=.217$, $p<.01$)과 사교-우호적 영역($r=.29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지배-우월적 영역($r=-.190$, $p<.01$)과 경쟁-공격적 영역($r=-.186$, $p<.01$), 반항-불신적 영역($r=-.311$,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적 영역($r=.139$, $p<.05$)과 경쟁-공격적 영역($r=.125$, $p<.05$), 반항-불신적 영역($r=.325$,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동정-수용적 영역($r=-.119$, $p<.05$)과 사교-우호적 영역($r=-.247$,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적 영역($r=.199$, $p<.01$)과 사교-우호적 영역($r=.24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지배-우월적 영역($r=-.157$, $p<.01$)과 반항-불신적 영역($r=-.29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중 반항-불신적 영역($r=-.290$,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동정-수용적 영역($r=-.141$, $p<.05$)과 사교-우호적 영역($r=-.24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2. 결 론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순위에서 막내가 맏이나 중간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한 집단일수록 부모와 개방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부모와 문제형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셋째, 출생순위에서 맏이는 사교-우호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막내는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있다.

넷째,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독립-책임감적이고,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

다섯째, 아버지와 개방형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자녀는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고, 아버지와 문제형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

여섯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수록 자녀는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일수록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는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의사소통 기법 훈련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제 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질적 측정과 함께 문제 요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의 의사소통도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199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표현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남희(200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양희(1989).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윤희(1989). 부부관계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가족기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미(1997). 학급내 인기아와 고립아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선(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희(1988). 부모 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정화(1998). 형제자매관계의 특성과 대인관계상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성향(1994). 청소년의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연호(1999). 인간관계론. 서울 : 박영사.
- 방문희(1991).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신의정(199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및 성별이 중학생의 갈등표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혜영(1992).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범희(1972). “대인관계의 이론 고찰”, 「원우론집」, 제7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 _____ (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오세덕(1995).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과 부모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유영주(1998).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정우·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3호.

- 임동숙(2000). 중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명희(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준교(199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치 지향성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소영(1995). 고교생의 지각한 부-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용근(1996). 인간관계훈련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용식(1991). 국민학교 학급내의 대인관계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경희(1993).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수준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부근(1993). 아동이 지각한 가정 및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순규(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Barns,H.L., & Olson,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 Beaubien,C.O.(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ernstein, B.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Theoretical studies toward the sociology of language*, 1,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Bienvenu, M.J. SR & McClain, S.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conomics*.
- Gordon, T. (1975).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John Willey & Sons, Inc.
- Kennedy, C.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513.
- Krech, D.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 May, R. (1961). *Existential Psychology*, New York : Rondon House.
- Olson, D.H. Sprenkle, D.H. & Russell, C.S. (1979).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utz, W.C. (1958). *FIRO :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 Rinehart & Company, Inc.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Parent Communication Style to Child Person-Relations Disposition

Song, Yeo-ok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eol-s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arent communication style to child person-relations disposition.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below:

1. How is parent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by child gender, child birth of order and family atmosphere?
2. How is the person-relations disposition of children associated with their gender, birth of order and family climate?
3.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 person-relations disposition?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and test the formulated hypothes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udents in their fifth and sixth year of elementary school from the city of Jeju, and 32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parent communication style was Barnes & Olson(1982)'s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inventory that covers two subareas: open communic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Another one to track the person-relations disposition of the students was An Beom-hui(1984)'s human-relations disposition inventory that deals with seven subareas: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independence-responsibility, sympathy-reception, sociability- friendliness, rivalry-aggression, ostentation-narcissism, and resistance- distrus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t-test and F-test were employ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child gender, birth of order and family atmosphere o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 person-relations disposition, and Pearson coefficient analysis was implemented to see how parent communication style was correlated to child person-relations dispos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by birth of order, the children who were the youngest in their families had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than those who were the oldest or the middle children.

Second, the children from more amicable families shared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those from less peaceful families leaned more toward problematic communication.

Third, by birth of order, the children who were the oldest in their families were more inclined to be sociable-friendly, whereas those who

were the youngest were more liable to be independent-responsible, sympathetic-receptive, ostentatious-narcissistic or resistant-distrustful.

Fourth, the children from more peaceful families were apt to be independent-responsible or sociable-friendly. And those from less amicable families leaned more toward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rivalry-aggression, ostentation-narcissistic or resistance-distrust.

Fifth, those who shared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s were more inclined to be sympathetic-receptive or sociable-friendly, and the children who had more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s were more attached to resistance-distrust,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or rivalry-aggression.

Sixth, those who had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s were more disposed to be sympathetic-receptive or sociable-friendly. The children who shared more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s leaned more toward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or rivalry-aggression.

It'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the kind of communication training that could accelerate more functional, smooth parent-child communi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children to build more positive, receptive human relations.

부 록

◆ 배경변인 검사

◆ 의사소통유형 검사지

◆ 대인관계성향 검사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에 필요한 것으로 어린이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만 사용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1. 11.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 여 옥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 안에 √표나 간단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1.당신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학년 ()

2. 당신의 출생순위는 ?

① 맏이 () ② 중간 () ③ 막내 ()

3.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정의 분위기는 ?

① 매우 화목하다 () ② 화목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화목하지 못한 편이다 () ⑤ 매우 화목하지 못하다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평소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에 V표를 하여 주세요.

번호	내용	항상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나는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주지하지 않고 의논한다.					
2	때때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아버지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잘 들어주신다.					
4	때때로 나는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렵다.					
5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곤 한다.					
6	아버지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아신다.					
7	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형태에 만족한다.					
8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의논한다.					
9	나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	나(아버지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아버지께 종종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11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12	나는 아버지께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할 때가 있다.					
13	아버지께서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주신다.					
14	아버지께서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나에게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가 있다.					
16	나는 아버지와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7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18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9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신다.					
20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평소 **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에 V표를 하여 주세요.

번호	내용	항상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나는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2	때때로 나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어머니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잘 들어주신다.					
4	때때로 나는 어머니께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렵다.					
5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곤 한다.					
6	어머니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아신다.					
7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형태에 만족한다.					
8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의논한다.					
9	나는 어머니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	나(어머니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머니께 종종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11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12	나는 어머니께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할 때가 있다.					
13	어머니께서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주신다.					
14	어머니께서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나에게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가 있다.					
16	나는 어머니와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7	나는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18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9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신다.					
20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그런 경우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남들에게 충고를 잘한다.					
2	남들로부터 잘난 척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	친구가 지시하는 일은 잘 따르지 않는다.					
4	남으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5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6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7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8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9	경기나 게임에서도 내기를 해야만 신이난다.					
10	윗사람에게도 따질 일은 따진다.					
11	칭찬을 받으면 그 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12	어떠한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다.					
13	지도자(반장 등)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14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					
15	나보다 어린 아이가 버릇없이 굴면 못 참는다.					
16	나는 친구들보다 무엇이든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주장대로 일처리를 한다.					
18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기를 좋아한다.					

번호	내용	그런 경우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9	남의 기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를 잘 한다.					
20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21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22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23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지면 나도 곧 갖고 싶어진다.					
24	남과 이야기를 할 때 말다툼을 잘한다.					
25	남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가끔씩 유별난 행동을 한다.					
26	나의 용모와 옷차림에 자신이 있다.					
27	윗사람이 어떤 지시를 하면 반발심부터 생긴다.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음직스럽지 못해 부탁하는 일이 별로 없다.					
29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킬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시키길 잘 한다.					
30	내 의견과 틀리면 무조건 반대한다.					
31	남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일을 처리한다.					
32	부탁 받은 일은 어렵더라도 꼭 해낸다.					
33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준다.					
34	어려운 일로 친구가 찾아오면 성의껏 의논 상대가 되어준다.					
35	혼자보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편이 좋다.					
36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대하지 않는다.					

번호	내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37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지고 싶지 않다.					
38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고 다툰다.					
39	여러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길 좋아하고, 더러는 과장해서 말한다.					
40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눈치이다.					
41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42	나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도 믿지 못한 경우가 있다.					
43	어떤 모임에서나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한다.					
44	친구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					
45	남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며 이에 만족한다.					
46	약속을 하면 상대방보다 먼저 나오는 때가 많다.					
47	경기에서 지는 편을 응원한다.					
48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격려해 준다.					
49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한다.					
50	혼자보다 여럿이서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51	어떤 일이건 친구들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52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직성이 풀린다.					

번호	내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53	남 앞에서 나의 집안 일이나 나의 자랑을 잘 한다.					
54	다른 사람들은 나를 꽤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55	남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56	다른 사람의 말을 끝이 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57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5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59	누가 도와주거나 충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60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 낸다.					
61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잘한다.					
62	나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63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비위도 잘 맞춘다.					
64	내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이다..					
65	남들과 다투는 일이 종종 있다.					
66	남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즉각 고치도록 충고해준다.					
67	웃차림에 대해 꽤 신경을 쓰는 편이다.					
68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 내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다.					
69	길을 갈 때 돌멩이나 그 밖의 물건을 치는 경우가 있다.					

번호	내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70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앞선다.					
71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잘 따른다.					
72	누가 묻는 것에 모른다고 말하기를 싫어한다.					
73	내게 옳지 않는 일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74	나에게 빌린 것은 제때에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75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76	나에게 잘못된 친구라도 곧잘 어울리게 된다.					
77	처음 만난 사람과도 곧잘 얘기를 나눈다.					
78	여럿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한다.					
79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앞지르고 싶다.					
80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통을 주어야 속이 후련하다.					
81	자그마한 일에도 곧잘 흥분한다.					
82	한참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자주 있다.					
83	마음에 안드는 사람의 말은 일단 반대하고 본다.					